

치 사

좋은날입니다. 먼저 제17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 및 언론인상 수상자와 각 부문의 수상자들의 노고와 열정에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준비해 오신 운영위원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불교계는 오래 전부터 언론매체를 통한 포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직지심체요절, 석보상절 등 불교가 출판문화를 선도한 역사가 있으며, 근대 100여 년 동안 수많은 신문과 잡지를 비롯한 정기 간행물을 발행해 왔습니다. 또 방송분야에서는 라디오 불교방송과 불교TV를 통해 미디어를 활용한 포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본 종단은 매체를 통한 불교이념과 정법의 구현을 위해 1993년부터 불교언론문화상을 제정하여 찬란한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언론을 통해 건강한 사회발전에 기여한 작품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불교언론문화상이 17회를 맞이하면서 기존의 TV, 신문, 라디오 외에 컴퓨터 문화의 현대사회를 반영하는 인터넷 분야가 포함되어 불교 언론의 저변이 확대되었으며, 더불어 불교언론문화상의 위상과 영역도 더욱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타불이 자비실천의 불교이념을 언론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가는 것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동시에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알리는 소중한 일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공동체 정신이 약화되고 자본과 물질이 앞서 생명이 경시되어 가는 이 시대에,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모습과 대중생활을 근간으로 삼으며 수행하는 불가의 문화를 언론매체가 다루고 또 그러한 작품을 국민들이 같이 향유하는 것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실천이라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로 접어들어 언론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가장 절실하게 언론다운 언론이 필요한 시기로, 신속함보다는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제공 그리고 정보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또한 묵묵히 일념수행의 자세로 언론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올바른 불교언론문화상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상이 제17회에 오기까지 변함없이 지원해주시는 안국선원 수불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 해의 불교언론문화의 장을 함께하고자 동참해주신 수상자들과 모든 분들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3(2009)년 12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